지역 소식통

정읍시, 국지도 49호선 4월까지 가로수 조성

정읍시는 오는 4월까지 국지도 49호선(산외면 동곡리~화죽리 구간,3km) 가로수 미식재 구간에 이팝나무 470주를 추가로 식재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부터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계획(10개년)에 따라 국지도 49호선에 가로수를 조성하고 있다. 현재까지 칠보면 와우리부터 산외면 동곡리(4.9km) 구간에 이팝나무 620주를 식재해 시민들에게 녹음을 제공하고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데 힘쓰고 있다.

또한 도심 내 결식구간 보식, 수형 불량목 교체, 병해충 방제, 가지치기 등 가로수 유지관리에 힘써 가로수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인 가치 증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결핵 없는 건강한 부안' 결핵예방주간 캠페인 전개

부안군은 제14회 결핵 예방의 날(3월 24일)을 맞아 결핵 예방 수칙 준수와 검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지난 18일부터 오는 24일까지 결핵 예방주간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결핵 발생률은 2023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39명 정도로 OECD 회원국 중 콜롬비아(인구 10만명당 47명) 다음으로 높은 발생률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21일 부안읍 홈마트 사거리 일대에서 65세 이상 어르신 매년 1회 결핵 검진, 2주 이상 기침하면 결핵 검진, 올바른 손씻기와 기침 예절 등의 내용으로 길거리 홍보캠페인을 펼쳤다. 또 결핵환자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검진을 독려하기 위해 지난 19~20일 읍·면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어르신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결핵 검진 및 감염병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결핵이 의심되는 경우 보건소를 방문하면 무료로 흉부-X선, 가래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환자로 진단되면 치료부터 완치까지 진료 일정과 복약 여부 등을 철저히 관리해 치료 성공률을 높일 계획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 농특산품 인도네시아 수출

바이어 초청 현지 고창상품 설명회 개최… 수출 MOU도 체결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군수 심덕섭)이 지역의 우수한 농특산품의 동남아 수출 확대를 위해 인도네시아 시장 개척에 나섰다.

고창군은 20일 자카르타 쉐라톤 호텔에서 aT 자카르타 지사와 함께 인도네시아 식품 바이어를 초청하여 고창 농특산품 설명회와 수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Food Star Global, Koin Bumi, Korinus, Kaifa Indonesia, Indoguna 등 5개 바이어사에게 복분자주·음료, 소금사탕, 고구마말랭이, 배, 딸기 등 20여 품목을 소개하였으며 바이어들의 뜨거운 관심을 이끌었다.

고창군은 20일 자카르타 쉐라톤 호텔에서 aT 자카르타 지사와 함께 인도네시아 식품 바이어를 초청하여 고창 농특산품 설명회와 수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특히 이날 인도네시아 푸드스타 글로벌(대표 곽봉규)과 수출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시장 확대가 기대된다.

푸드스타 글로벌은 한식당 프렌차이즈 운영 및 자카르타 롯데마트 등 현지 마켓에 한국식품을 전문 유통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연간 20만불 정도의 고창 농특산품의 수출이 확대될 예정이다.

곽봉규 푸드스타 글로벌 대표는 "세계가 인정한 유네스코 7개를 품은 고창군과 수출 업무협약을 맺게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시장가능성이 있는 다양한 제품을 발굴하였으며 판매가 확대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인도네시아는 2억7,000만명 세계 4위의 인구 대국이며, 한국 농식품 수출액이 3,294억원에 이를만큼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며, "고창군에도 기회의 땅이 될 수 있는만큼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며 고창군의 우수한 농특산품이 수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2024 공예주간 공예문화 거점도시 공모 선정

부안군문화재단, 공예행사 다채

부안군문화재단(이하 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에서 주관하는 '2024 공예주간 공예문화 거점도시'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공예문화 거점도시 공모사업은 지방자치단체와 선정기관이 협력해 지역의 특색있는 공예문화 콘텐츠를 발굴함으로서 시민들에게 공예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재단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국비 8,000만원을 포함한 1억6,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공예주간(5월 17~26일)을 시작으로 전시, 프리마켓, 학술행사, 투어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이다.

공예주간 프로그램은 〈공예가 있는 풍경(Craft-Scape), 청자와 그 친구들 산들바다를 품다〉 라는 제목으로 청자 박물관, 내소사, 변산해수욕장, 수성당 등 부안의 아름다운 풍경과 공예를 결합하여 진행된다.

또한 연간 프로그램으로 부안 시골공방 투어, 청자 캠페인, 청자 포럼 등이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어 그야말로 일 년 내내 공예문화가 꽃 필 예정이다. 재단은 전통문화 분야 전문기획자 설지희씨(프롬히어 대표)를 PM으로 선정하고 부안도예가협회, 예술가협동조합 투리, 부안청자박물관, 부안청년건강모임, 시고르청춘, 남부안소생활권활성화사업단 등 지역의 여러 기관·단체와 협의체를 조직, 구체적인 사업안을 구상중에 있다.

부안군문화재단(이하 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에서 주관하는 '2024 공예주간 공예문화 거점도시'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이와 관련 4월 초에는 참여 공예가 및 업체 공모 등이 진행되면서 사업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 독립운동가 캐릭터 공모전

시, 백정기·박준승·전봉준, 캐릭터로 재탄생… 4월 26일까지 접수

정읍시가 정읍의 독립운동가인 백정기 의사, 박준승 선생, 전봉준 장군의 인지도 향상과 기념관 홍보를 위해 '정읍시 독립운동가 캐릭터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 주제는 정읍 독립운동가 3인의 정체성과 역사적 업적을 고려한 캐릭터다.

출품자가 A그룹(백정기 의사·전봉준 장군)과 B그룹(박준승 선생·전봉준 장군) 중 한 그룹을 선택해 인물별 캐릭터를 응모하면 된다.

공모 기간은 4월 26일까지이며,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A, B그룹 한 번씩 응모가 가능하다.

공모작은 1차 내부 심사와 2차 전문가 심사를 거쳐 대상 2명(각 100만원), 최우수상 2명(각 80만원), 우수상 2명(각 60만원)으로 최종 6명(그룹별 3명)을 선정한다.

캐릭터는 추후 전문 디자인을 거쳐 다양한 홍보 상품으로 개발해 독립운동가 및 관련 기념관 홍보에 활용 예정이다. 이학수 시장은 "정읍의 자랑스러운 독립운동가들을 더욱 더 기억하고 알리기 위한 캐릭터 공모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독립운동가를 알리기 위한 다양한 보훈 사업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추진

고창군이 '2024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공모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고창군은 2022년부터 3년 연속 사업에 선정돼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024년에도 관내 일반주택 280개소에 태양광, 태양열 및 지열을 설치하여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계획이다. 군은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 지난 2022년에는 고창읍, 신림면, 흥덕면, 2023년에는 고수면, 아산면, 성송면, 성내면, 부안면 지역을 대상으로 총 50억원을 투자해 722개소에 신재생에너지원(태양광 670, 태양열 37, 지열 15) 설치를 완료했다.

올해는 무장면, 공음면, 상하면, 해리면, 대산면, 심원면 280개소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계획이며 2025년에는 올해 사업 대상 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대상으로 4년 차 공모사업 신청할 예정이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주택, 공공청사, 상가, 축사 등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의 신재생에너지원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태양광 발전설비(3kW)를 주택에 설치·보급할 경우 전기 사용량에 따라 월 4~5만 원 이상의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어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군민들의 에너지 복지 및 에너지 자립률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융복합지원 사업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자동차 무보험 운행·무단방치 사건 근절 나서

정읍시가 자동차 무보험 운행과 무단방치 사건 경감에 나섰다.

21일 시에 따르면 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2년 6만 355대, 2023년 6만 1292대, 2024년 6만 1545대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무보험 운행과 무단방치 사건 발생 건수도 2022년 무보험 운행 34건·무단방치 14건, 2023년 무보험 운행 76건·무단방치 사건 40건 등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교통 분야 특별사법경찰을 1명 추가로 지정(기존 2명)해 100건이 넘는 차량을 적발해 사건 처리를 했다.

이밖에도 보험 만기 차량에 의무보험 가입명령서를 발송해 무보험 운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하고, 무보험 운행과 무단방치로 형사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무보험은 무단방치를 남긴다'는 업무편람을 제작·배포한 서울 동대문구청 벤치마킹을 통해 효율적인 업무처리 방식 등을 배워 적합한 방식으로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차량이 늘어나 무보험 운행과 무단방치 차량이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며 "특히 무보험 운전은 시민의 안전과 재산에 직결된 만큼 지속적으로 홍보해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